"과학 공부에 좋은 표본되길…"

창원회원초 문해원 교사, 1억년 전 도마뱀 화석 발견

경남 창원 회원초등학교(교장 조덕제) 문해원 교사는 진주교대 김경수 교수가 이끄는 경기도 지구과학교사연구회의 지질 답사과정 중 1억년 전 중생대 백악기의 도마뱀 발자국 화석을 경남 남해군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하여 각종 신문에 보도됐다.

세계 최초의 중생대 백악기 도마뱀 발자국 화석을 발견한 문해원 교사는 평소 과학교육 및 지질유산(지층 및 화석 등)에 관심이 많아 경남의 여러 지역을 답사하며 관련 소양을 쌓았고 남해군 가인리의 지질 유산을 주제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학생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문해원 교사는 "역사적으로 뜻깊은 화석을 직접 발견하게 되어 영광이다. 앞으로 중생대 화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자라나는 학생들의 과학 공부에 좋은 표본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로운 화석은 '한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종류의 도마뱀 발자국'이란 뜻의 '네오사우로이데스 코리아엔시스(Neosauroides koreaensis)'로 명명했다.

연구 결과는 중생대 백악기 관련 연구 전문 국제학술지(SCI)에서 '아시아 백악기에서 발견된 세계 최초의 도마뱀형 발자국 화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 26일자 온라인호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일반인에게는 국립문화재 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을 통해 2017년 상반기부터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호기 기자 khk@

학교교육에서 행복 찾기

고성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 관련 연수회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은 22일 관내 중학교 전 교사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참여·활동형 수업역량 강화 5개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연수회를 경남교육종합복지관에서 개최했다.

2016학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교과 '수업의 혁신'인 학생 참여·활동형 교수·학습 및 과정 중심의 평가에 대해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고성은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 시설을 활용한 연수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 다 수의 교사가 연수에 참여하면 학교일과 운영, 수업 및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의 일과를 마치고 연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연수 장소로 활용하고 있어, 연수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연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등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교실수업 확산에 따라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와 자기 표현력 향상을 위한 협동학습, 토론수업 및 실험·실습 등 체험중심의 수업,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통한 융합수업을 실시하여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수를 가졌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고성중 조진철 교사는 자유학기제 학생 참여·활동형 수업역량을 강화하고,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희 교육장은 "자유학기제 교실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해 교원의 현장 연수 및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과 끼를 탐색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교직원의 행복지수를 높이자

산청교육지원청, 행정업무적정화 컨설팅

산청교육지원청(이상룡 교육장)에서는 22~23일 이틀간 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각 급 학교(29개교) 업무담당자와 컨설팅요원 등 총3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된 컨설팅은 교직원들이 학교에서 처리하는 다양한 업무의 종류를 파악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교무행정지원 인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하고, 교직원 행정 업무 적정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는데 있다.

컨설팅을 통하여 제시된 안건 중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 학습 및 수학여행 사전답사 업무를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지원담당에서 사전조사 해 각 급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도 특이한 안건으로 논의되는 등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컨설팅을 통하여 제시된 여러 의견들 가운데 장·단점을 찾아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교무행정 지원 업무의 어려운 점을 찾아 행정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업무담당자들은 "이번 컨설팅을 통하여 '선생님을 학생 곁으로'라는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며 입을 모았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자

의령교육지원청, 진로체험 지원 협의회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학래)에서는 9월 23일 남산초등학교 도서실에서 의령관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후 학교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적 특색과 학생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교육 방법에 대하여 논의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번 협의회에 참석했던 초등학교 교감은 "자유학기제의 시작으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진로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초등학교에서도 다양한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활동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겠다."고 하였다.

이학래 교육장은 "체험형 진로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성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양산교육지원청 학부모 네크워크 토닥쓰담 하반기 협의회 개최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점성)은 9월 21일 양산교육지원청 1층 대강당에서 학부모 130여 명이 참여하여 '형형색색, 학부모의 열린 축제' 2016. 양산학부모네트워크토닥쓰담 하반기(2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부모 네트워크 협의회는 교육주체인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정보 서비스의 원스톱 제공과 학부모-학교-교육지원청간 소통·협력 기회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단위학교 학부모간의 정보 공유와 민주적 의사소통·협력을 통한 학교교육 참여를 유도하고자 진행되었으며, 초·중·고 학교급별 소그룹 활동을 통해 각종 학부모 교육 정책 및 교육현안 문제를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양산 학부모네트워크 토닥쓰담' 협의회는 앞으로도 자율적인 소통 기회를 가지고 상호 정보교환 및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의견수렴, 기타 학교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산교육지원청 김점성 교육장은 "앞으로도 형형색색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부모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주도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하여 우리 자녀가 즐거운 학교, 행복한 배움을 이루어가자"고 하였다.

아동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요!

통영교육지원청 '옐로카펫' 사업 설명회 개최

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권)은 20일 초등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녹색어머니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한 '옐로카펫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후원을 통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통영마을, 통영시청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학생이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동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착안하여 시작된 옐로카펫 사업은 아동이 횡단보도 이용 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공간 조성을 통해 도로횡단 시 안전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보행안전을 유도하고, 운전자의 어린이 안전구역 인지를 통한 보행안전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남에서는 통영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녹색어머니회 학부모는 "세월호 사건 이후 어느 때 보다도 학생의 안전이 강조되고 있고, 특히 자녀를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은 모든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바람이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많은 학교가 지원을 받아 통영이 아동 친화적인 도시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통영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제아동인권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통영마을과의 협약식 개최 및 사업을 신청한 학교별 현장 실사를 통해 2개 학교를 선정 후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옐로카펫 설치 행사를 진행하여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